



경인지역본부



경인지역본부

수원지사	수연회
용인지사	사랑봉사단
화성오산지사	아름다운 동행
안양지사	함께하는 사람들
군포의왕지사	나눔과 기쁨
성남지사	참사랑
이천지사	이웃사랑 실천 봉사단
평택지사	평택 사랑 봉사단
안산지사	안산사랑회
광명지사	작은밀알
시흥지사	옹달샘
부천지사	연금이 나눔누리 봉사단
남동연수지사	어깨동무
서인천지사	서사모봉사단
남인천지사	희망열차
부평계양지사	HAPPY LIFE 1355



경인지역본부

수연회 _ 수원지사

주요활동

- 장애인들과 함께하는 공감체험
- 저소득 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 어린이재단 소년소녀가장 정기후원
- 설, 추석명절 어려운 이웃 물품전달



사랑봉사단 _ 용인지사

주요활동

- 저소득 어르신 도시락 배달
- 장애우 수중치료 도우미 봉사
- 저소득 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등



길게 하는 사랑 '長愛'

수원지사 봉사단 '수연회'는 2009년 5월에 「경기도장애인종합복지관」과 도내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공동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업무협약에 따라 수원지사는 복지관을 상대로 문화나눔운동을 비롯한 자원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09년 6월에는 지적장애인과 함께 화성시의 분천리 농장에서 특용작물 재배활동에 참여했고 2009년 7월 초에는 장애인과 장애인의 보호자에게 탕수육과 자장면을 직접 만들어 제공하여 장애인들에게 가족 간 유대감 형성에 도움을 주었으며, 7월 중순에는 수연회 봉사단원의 역지사지 장애체험이 있었다. 점자 찍기와 같은 시각장애인체험과 휠체어 사용 등 지적장애인체험을 통해 장애인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봄으로써 장애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수원지사 수연회는 앞으로도 「경기도장애인종합복지관」과 지속적인 봉사활동, 교육 강좌, 문화체험, 건강검진서비스 등을 통해 장애인과 국민연금수급자에게 재활의지를 높여주고 우호적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수중에서 만나는 친구

2005년도 9월 구성된 용인지사 '사랑봉사단'은 관내 양로시설 및 독거 어르신들에 대한 물품, 기부금 지원 및 자원봉사로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2006년 2월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미납보험료 대납 및 생필품 전달 등으로 용인시 지역신문에 미담사례로 보도되기도 하였다.

2006년 11월부터 「용인시가정봉사센터」와 연계하여 용인시 기흥구 일대 저소득 어르신께 주기적인 도시락 배달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238회 실시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는 매년 용인시민신문에서 주관하는 연탄나눔운동에 참여하여 연탄 기증 및 배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2008년 4월부터 뇌성마비장애인에 대한 생활 및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한의 집」에서 장애우 수중치료 프로그램을 월 1회씩 보조하고 있다.

한편, 2008년도부터 저소득 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올해는 그 대상을 3명으로 확대함으로써 좀 더 많은 분이 연금 수급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밖에 매년 명절 및 어버이날과 연말을 맞이하면 어김없이 어려운 어르신들과 아이들에게 작은 정성을 나누었으며, 올해부터는 사회복지단체인 굿네이버스와 연계하여 방학 중 결식아동들의 급식비를 지원하는 등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우리 용인지사 사랑 봉사단은 백방으로 뛰고 있다.

주요활동

- 노인요양시설 창설, 식사도우미 활동
- 불우청소년 급식비 지원 등



행복을 가꾸는 아름다운 동행

화성오산지사 봉사단 '아름다운 동행'은 화성 봉담읍에 위치한 노인요양시설인 「해 뜨는 마을」에서 매월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해 뜨는 마을」에 입소한 어르신들은 치매, 노인성 질병 등으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상처를 받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분들이 대부분이다.

봉사단은 「해 뜨는 마을」에서 어르신들의 다정한 말벗이 되어 드리고 청소와 식사 도우미 등의 봉사활동에 정성을 다하고 있다.

거동이 많이 힘드신 어르신은 식사를 누워서 할 수 밖에 없는데 이때 곁에서 식사를 돕는다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하지만, 힘들게 식사를 마치신 어르신의 뒷모습에서 우리는 스스로 작은 수고에 더할 나위 없는 보람을 느끼곤 한다. 이러한 보람은 우리 봉사단원들이 지치지 않고 '행복을 가꾸는 아름다운 동행'을 지속할 수 있는 동력이기도 하다.

이외에도 가정형편이 어려운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에게 매월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고 명절에는 따로 작은 선물 등을 마련하여 전달하고 있다.



경인지역본부

함께하는 사람들 _ 안양지사

주요활동

- 노인복지센터 후원 및 배식, 설거지 봉사



나눔과 기쁨 _ 군포의왕지사

주요활동

- 저소득 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 신나는 걸음 팡팡 교실 운영



우리 같이 식사해요

안양지사 봉사단 '함께하는 사람들'은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위치한 「안양노인복지센터」에서 2005년 2월부터 2009년 9월 현재까지 4년이 넘는 기간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다.

「안양노인복지센터」는 신체적 정신적 노화 및 사회·환경적 요인으로 가정과 사회에서 소외를 겪는 무의탁 노인, 영세노인, 재가노인들의 심신건강유지와 노후생활안정을 위하여 설립된 시설이다. 이곳에서는 노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 중 매일 300~400명이나 되는 노인들에게 무료급식을 하고 있다.

매일 무료급식 봉사는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여 봉사단의 봉사활동 업무로서는 최적이라 판단되어 매주 1회, 2명씩 참여를 하게 되었다. 봉사단이 주로 하는 일은 배식과 설거지로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약 2~3시간 남짓 되는 시간 동안 수백 명의 배식과 설거지를 하는 내내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고 힘이 들어 일을 마치고 나면 녹초가 될 정도이다. 하지만, 봉사단원들은 일이 힘든 만큼 봉사활동을 통한 보람도 비례하여 많이 느끼고 있으며 진정한 나눔과 사랑은 나를 희생함으로써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몸소 체험하고 있어 오랜 기간 봉사활동을 지속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한편, 봉사단은 봉사활동 외에도 매월 급여에서 십시일반 모아 「안양노인복지센터」에 후원금을 지원해오고 있다.

신나는 걸음 팡팡

군포의왕지사 봉사단 '나눔과 기쁨'은 직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성금으로 저소득자 중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차후 연금 수령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많은 분들을 설득하여, 납부재개 신청을 받고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하여 줌으로써 향후 노령연금을 수급하여 노후 생활에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한, 2009년부터는 「주몽사회복지관」과 연계하여 '신나는 걸음 팡팡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주몽사회복지관」에 다니시지만 다리가 불편해서 외출할 기회가 줄어든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매 분기 한 번씩 나들이를 돕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어르신들에게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선물하고 있다.

참사랑 _ 성남지사

주요활동

- 복지 시설에 후원 및 봉사
- 장애우 목욕봉사
- 저소득 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이웃사랑 실천 봉사단 _ 이천지사

주요활동

- 저소득 연금수급자 결연 및 후원
- 사회복지시설 등 후원 및 봉사활동



인연은 길고 깊게, 그리고 소중하게

성남지사 봉사단 '참사랑'의 사회공헌 활동은 2005년 12월 무의탁노인시설 및 지체장애아 시설을 방문, 생필품 전달과 이야기 나누기로 활동이 시작되어 다양한 복지시설에 대하여 지원을 하던 중, 2007년 초 일회성 지원은 복지시설 및 장애아 등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되지 못하고, 생색내는 활동이 될 수도 있다는 회원들의 인식하에 지사의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1~2개의 시설을 중심으로 활동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2007년부터 봉사단의 사회공헌활동은 "인연은 길고 깊게, 그리고 소중하게"라는 생각을 가지고, 비인가(현재 인가) 시설이었던 「임마누엘의 집」의 장애우를 대상으로 목욕봉사 활동 및 생필품 지원을 3년여 동안 실시하고 있으며, 노숙인 쉼터인 「안나의 집」에 1년 동안 쌀 등 생필품을 지원하여 왔다.

참사랑 봉사단의 사회공헌활동은 "인연은 길고 깊게, 그리고 소중하게"라는 생각을 중심으로 한번 맺은 인연을 소중히 키워나갈 수 있는, 사회복지 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그런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주민들의 든든한 일꾼

이천지사 '이웃사랑 실천 봉사단'은 2007년부터 관내 유관기관과의 유대강화로 지역의 대외봉사활동(거리 대청소, 식목행사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였다.

또한 2007년 10월부터는 사회공헌활동 특화사업으로 관내 소년가장인 유족연금 수급권자를 1명 선정하여 매월 정기적인 학자금 지원 및 명절 등에 의류 등을 구입하여 전달하고 있다.

2008년 4월 관내 그룹홈 기관인 「일신어린이집」과 정기적인 후원 협약을 맺고 세탁기 지원을 시작으로 겨울철 난방비, 기타 생활필수품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오고 있으며, 노인요양시설인 「다사랑무료요양원」과도 정기적인 후원 협약을 맺고 매월 성인용 기저귀 등 필요물품 지원은 물론 요양원에서 운영 중인 과수원의 과실(배) 수확작업과 과수 구매 활동 등을 전개하였다.

이 밖에도 지자체의 추천을 받아 지역의 불우이웃에 대하여 연탄을 구입하여 직접 전달하였으며 기초수급자 가정의 도배, 시설물 보수 등의 활동에 나서 지역주민과의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공단의 대외적 이미지 개선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경인지역본부

평택 사랑 봉사단 _ 평택지사

주요활동

- 독거노인 등을 위한 반찬배달
- 소외이웃과 함께하는 명절행사
- 저소득 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등



안산사랑회 _ 안산지사

주요활동

- 사회복지시설 후원 및 봉사활동
- 저소득 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등



어르신들 맛있게 드세요

2005년부터 꾸준히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던 평택지사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후원을 위하여 2008년 7월 '평택 사랑 봉사단'을 발족, 인근 「합정종합사회복지관」과 결연을 하였다.

이후 매주 목요일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과 결식아동을 위한 반찬배달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매주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하다 보니 직원들을 알아보고 더 따스하게 맞아주시며 수고한다는 말을 잊지 않으신다. 또한 '국민연금' 로고가 새겨진 조끼를 입고 반찬배달을 하니 봉사활동을 하다가 민원상담을 할 경우도 종종 있어 '찾아가는 서비스'의 일환이 되기도 한다.

소외된 이웃이 더욱 외로움을 느낄 때가 가족이 함께하는 명절이나 추운 겨울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 이에 평택 사랑 봉사단은 매년 복지관과 함께 '한가위 송편나누기' 행사와 '사랑의 김치 나누기' 행사를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손이 많이 가는 명절 음식이나 김치를 온종일 밖에서 만들다 보면 지치기 십상이고 옷도 더러워지지만 봉사단의 모습에서는 그런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음식을 드시며 기뻐하실 분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힘이 절로 난다는 것이 직원들의 반응이다. 무거운 김치나 쌀을 배달하면서 구슬땀을 흘리지만 너무 고맙다는 독거노인들의 인사에 이전의 고생스러움은 싹 잊게 된다.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이 지역사회의 본보기가 되어 「기념방송」에 2008년 9월 뉴스로 보도되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평택 사랑 봉사단에서는 결식아동 방학기간 중식지원, 장애인 재활사업 후원, 평택·안성 사회복지단체 후원, 저소득 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등 다방면에서의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함께 나누는 삶을 거창하고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이렇게 작지만 꾸준한 지원이야말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장애우에게 용기와 희망을

안산지사 봉사단 '안산사랑회'는 2006년부터 안산시 부곡동에 소재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빛과 동지」를 정기적으로 후원하고 있다. 민족 고유의 명절 설과 추석 전 사랑의 쌀을 해를 거르지 않고 지원해 오고 있으며, 매년 시설을 방문하여 장애우들의 천연비누 만들기 작업을 도와주는 등 지속적인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안산사랑회는 장애3급 이상 50명이 생활하는 경기도 안산시 고잔동의 장애인생활시설 「평화의 집」에도 역시 2006년부터 필요 물품 등을 후원하면서 연 2회 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생활공간 청소 등 자원봉사활동도 열심히 해오고 있다.

이와 같은 정성어린 손길 때문이었는지 「평화의 집」에서 생활하는 어린 학생이 '따뜻한 마음을 보내는 이가 있어 힘을 낼 수 있다.'는 내용의 감사편지를 보내주기도 하여 봉사단원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해 주었다.

안산사랑회는 이 밖에도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전개하여 지역의 어려운 주민들과 청소년들이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주요활동

- 관내 불우 청소년 후원
- 독거노인 점심식사 급·배식 및 도시락 배달
- 사회복지시설 후원 등



‘참 복지’를 실현해가는 작은 밀알이 되어

2009년 7월 10일 광명지사 ‘작은밀알’ 봉사단이 그동안 소규모 봉사단체라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꾸준히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관내 사회복지기관인 「(사)한국지역복지봉사회」 창립기념식에서 ‘우수법인상’을 수상하였다.

봉사단의 사회공헌활동이 본격적으로 체계를 갖추고 운영되기 시작한 것은 2007년 초부터였다. 이전 비정기적으로 시행해오던 것을 정리하고 관내 복지관에 사회복지단체로 정식등록을 하고 독거노인에 대한 점심 급·배식에 참여한 것을 시작으로 점차 그 참여폭을 넓혀 광명시에서 사회봉사활동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한국지역복지봉사회」에서 실시하는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 ‘도시락 배달 및 수거’ 활동에 참여하게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더불어 관내 불우이웃에 대한 후원활동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2007년부터 소년가장에게 직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금한 돈으로 매월 일정액의 후원금을 전달하고 있으며, 설·추석 명절에는 봉사기관의 추천을 받아 불우독거노인을 찾아 위로하고 성금을 전달하는 등 따뜻한 이웃사랑의 정도 함께 나누고 있다.

또한, 그동안 지사에서 꾸준히 추진해오고 있는 ‘수급자간담회’를 통해 사회공헌활동의 참여에 관심을 보이신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2009년 2월 ‘광명 연금인의 모임’을 개최하였다. 이를 계기로 연금수급자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말뿐인 사회복지가 아닌 몸소 사회복지를 수행해가는 봉사단원들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수급자들과 함께 매월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공단의 이미지가 개선에도 커다란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봉사단원들의 자녀에게도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여 높은 호응을 이끌어내기도 하였다.

묵묵히 맡은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면서 지역사회 일원으로서의 역할에도 충실하고자 노력하는 작은밀알 봉사단의 선행이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경인지역본부

옹달샘 _ 시흥지사

주요활동

- 독거노인 및 저소득층 후원금 지원
- 관내 복지기관 사회공헌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



연금이 나눔누리 봉사단 _ 부천시사

주요활동

- 수급자와 함께하는 봉사단 운영
- 독거노인 무료급식 배달 및 이·미용 봉사
- 장애아동 재활 프로그램 보조
- 성인장애인 문화체험 파트너십 활동



‘옹달샘’이 ‘희망샘’으로 되기까지

시흥지사 봉사단 ‘옹달샘’은 2005년 9월 ‘샘물회’로 사회공헌 봉사단을 결성하여 현재는 ‘옹달샘’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역사회 복지기관인 「정왕종합사회복지관, 「시흥장애인종합복지관, 「엘림요양원, 「송암보육원」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자원봉사단원으로 참여하여 목욕봉사, 간식봉사, 도시락배달 등 자원봉사활동은 물론 정기 후원금 지원과 생활용품 전달 등 작지만, 경제적 지원도 함께하고 있다.

2009년 2월부터는 「정왕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께 밀반찬 전달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5월 가정의 달 행사 시에 호도잔치 후원금을 지원하여 독거노인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해 드린 바 있고, 10월에는 나눔 바자회 행사에 김 25상자를 구매하여 「시흥장애인 종합복지관」에 장애우들을 위해 기증하기도 하였다. 여건이 허락하는 한 매년 행사에 참여하여 작은 정성과 행복을 나누고자 다짐하고 있다.

2008년 봄에는 한 부모 가정의 학생이 중학교에 입학하는데 교복구입을 못하고 있다는 사연을 듣고 예쁜 교복 한 벌을 선물해주었는데 새 교복을 전달받은 학생과 어머니의 좋아하던 모습에서 보람을 찾기도 하였다.

봉사단원들은 봉사활동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소외된 계층의 삶을 바라보게 되고, 나눔은 결코 행복이 줄어드는 것이 아님을 체험하며 따뜻한 지역사회의 일원이 되고자 다짐하고 있다.

연금수급자와 함께 밝히는 사랑의 등대

2005년 부천시사 사회봉사단 ‘복사골 도움회’가 생겨난 이래, 아동보육시설 엠마오의 집에 지속적으로 생필품을 전달하는 한편,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를 통해 지역사회 독거노인과 소외계층에게 김장김치를 지속적으로 전달해 왔다. 또한, 2007년부터는 춘의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 매주 금요일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대상으로 꾸준히 무료 급식을 배달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2009년부터는 사회공헌활동 프로그램을 보다 다양화하고 체계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과 MOU를 체결하였으며, 이후 매주 목요일마다 직원과 장애아동이 간단한 요리를 만들며 교감을 함께 나누는 ‘나는 꼬마 요리사!’ 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또 매월 넷째 주 수요일 ‘NPS 사회공헌의 날’에는 평소 바깥나들이가 쉽지 않은 성인 지적 장애인과 함께 볼링, 영화 등을 즐기는 문화 활동 파트너십 프로그램이 실시 중이다.

2009년 8월에는 기존의 지사 봉사단을 확대하여 직원 58명과 부천시지역의 국민연금 수급자 20여 명으로 구성된 ‘연금이 나눔누리 봉사단’의 발대식을 가져 전국 최초로 연금 수급자가 매주 직접 봉사자로 참여하는 선진국형 봉사조직을 운영하게 되었다.

봉사단 발대식 이후 수급자 봉사단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봉사활동 영역도 넓혀가고 있다. 연금이 나눔누리 봉사단은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 사회에 소외되고 외롭게 지내는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우리 사회를 밝게 비추는 등대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주요활동

- 노인복지관 급식 봉사활동
- 관내 사회복지시설 후원
- 저소득 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 1사1촌 자매결연 농어촌사랑 운동



모두 같이 어깨동무해요

남동연수지사 봉사단 '어깨동무'는 2005년 11월 옹진군 장봉도 마을과 1사 1촌 자매결연을 하는 것을 시작으로 농어촌 일손 돕기, 지역특산물 구매, 자매결연마을 독거노인 가구에 대한 봉사활동 등을 통한 농어촌 사랑을 실천하고 있으며, 또한 구매한 지역특산물을 관내 어려운 이웃들과 복지시설에 전달하여 사랑을 나누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고 있다.

2006년 1월부터는 「남동구노인복지관」에 매월 2회씩 방문하여 무료급식소에서 급식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운영상 어려운 급식소에 쌀 등 생필품을 전달하여 보다 많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관내 복지시설, 차상위 계층 가정 등을 방문하여 생필품 등을 전달하였으며, 2008년 12월에는 독거노인의 자택을 방문하여 추운 겨울을 따뜻이 지내실 수 있도록 총 5가구에 240장씩의 연탄을 배달·전달함으로써 훈훈한 정을 나눔과 동시에 보람과 긍지의 시간 들을 보냈다.

2005년 11월부터는 관내 저소득층 자녀와 어려운 이웃을 선정하여 매월 장학금 전달 및 연금보험료 납부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관내에 위치한 청량산을 방문, 등산로 일대 청소와 쓰레기 줍기 행사를 펼쳐 깨끗한 도시를 가꾸는데 앞장서 자부심을 갖기도 하였다.

2009년 9월부터는 좀 더 폭넓은 봉사활동을 펼치려고 인천관내 4개 지사와 함께 인천 장애인 단체와 MOU를 체결, 체계적인 봉사활동을 계획하고 있으며, 특히 어깨동무 봉사단에서는 관내 「남동구장애인복지관」과 협의, 직원들이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봉사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봉사일정, 시간 등을 협의하여 전 직원이 참여하는 봉사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관내 연금수급자들과도 연계하여 봉사활동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으며, 지역발전 및 공단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지금도 많은 직원들이 노력하고 있다.



경인지역본부

서사모봉사단 _ 서인천지사

주요활동

- 무한나눔 텃밭 운영
- 사회복지시설 후원 및 봉사활동



무공해 무한 사랑 나눔

서인천지사 '서사모봉사단'은 2007년부터 대도시 주변부의 어려운 지사 여건을 극복하고자 창의적으로 건물 옥상을 활용하여 평소 내·외부 고객에게 도심 속의 작은 쉼터, 볼거리 제공과 수확한 채소의 무한 나눔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2007년 이후 겨울에는 텃밭에서 생산한 배추와 무를 지사 인근 한국아파트 노인회에 김장재료 일체를 제공하였으며, 점심식사용 채소(열무, 고추, 오이, 가지, 상추 등)를 텃밭에서 함께 수확하여 노인회에 전달하기도 하였고, 2009년 9월 연희노인대학 창립기념식 및 무료급식소에도 텃밭에서 수확한 채소를 제공하여 무공해 나눔 봉사 활동에 찬사를 받기도 하였다.

이 밖에도 'NPS 사회공헌의 날' 행사와 연금수급자 등 내방 고객에게도 9회에 걸쳐 나눔을 실천하여 고객과 지역주민에게 훈훈한 정을 나누고, 인천권에서 다소 외떨어진 어려운 지사 여건 극복과 직원 간 결속력을 다지고 고객과 이웃을 위한 무공해 봉사의 촉매제로 활용하고 있다.

서사모봉사단은 2007년 이후 현재까지 22개 품종의 채소와 약초 재배로 개인 660명, 단체 40개소 등에 280만원 상당의 무공해 사랑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공단의 이미지를 높이면서 지역사회에 숨은 일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희망열차 _ 남인천지사

주요활동

- 노인복지회관 배식 보조, 설거지 봉사 등 시설 및 불우 가정 후원
- 저소득 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HAPPY LIFE 1355 _ 부평계양지사

주요활동

- 장애인종합복지관 후원 및 봉사활동
- 무료급식시설 배식 및 설거지 봉사
- 아동보육시설 후원 및 봉사활동
- 저소득 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등



멈추지 않는 희망열차, 연료는 이웃사랑

남인천지사 봉사단 '희망열차'는 2005년도부터 최소 월 2회 이상 노인복지기관에서 배식 보조 및 설거지 봉사를 이어오고 있다. 봉사단원의 증감에 따라 월 참여 횟수의 조절은 있었으나 2005년 봉사단 발족 이후부터 현재까지 끊이지 않았다.

노력봉사와 더불어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후원활동도 펼치고 있다. 지역 내 자치단체의 추천을 받아 차상위 계층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동구노인복지회관」 등의 관내 사회복지기관에 농·식품과 의로기 등의 물품 후원을 통해 마음을 전달하였다.

또한, 2008년 12월에는 관내 저소득가구 4곳에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사랑의 연탄 나누기 행사'를 통해 연탄 1,000장을 직접 배달하여 전달하였다. 우리 지사 주관으로 인천지역 내 4개 공단 지사와 합동으로 실시하여 이웃 사랑의 실천을 확대할 수 있었던 뜻깊은 행사였다.

2009년에도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가정에 후원금을 지급하고, 저소득자가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저소득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을 작년에도 이어 올해도 계속하고 있는 등 희망열차의 운행은 계속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더 속도를 높여 달려갈 것이다.

나눔! 사랑의 띠로 이어갑니다.

부평계양지사 봉사단 'HAPPY LIFE 1355'는 각 지사단위별 자원봉사활동 실시에 따른 인력 및 재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내실 있는 봉사활동 실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인천권역 4개 공단 지사와 연합체를 구성하여 「인천장애인종합복지관협회」와 2009년 9월 8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각 기관의 장애인에 대한 복지사업에 협력과 지원을 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인천권역 4개 공단 지사 연합체는 매년 협회와 협의하여 협회소속 8곳의 장애인종합복지관을 대상으로 내실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하기로 하였으며, 2009년에는 동물원 현장학습(9월), 휠체어 마라톤대회(10월), 도배·장판 교체(11월), 두박이 체험학습(12월)이 예정되어 있다.

또한 봉사단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관내 부광교회에서 무료 점심식사를 하시는 노인 분들을 위해 배식보조 및 설거지 자원봉사활동에 매주 3~4명이 참여하여 점심식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사회복지법인 「시온육아원」에 매월 6명이 시설 주변청소, 영화 보여주기,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 함께 만들기 등의 자원봉사를 하였고 필요한 물품도 후원하였다. 「시온육아원」은 5세~18세까지의 다양한 연령으로 구성된 아동 보육시설이다.

연말에는 독거노인을 위한 사랑의 띠 잇기 나눔 행사를 펼쳐, 2007년 말 독거노인 10세대에 가구당 쌀 20kg와 연탄 190장을 직접 배달하고, 2008년 말에는 사회복지법인 「행복한 사람들」과 독거노인 7명을 초청하여 점심식사 대접과 쌀 20kg 10포대, 라면, 휴지 등 생필품을 전달하고, 「시온육아원」에 삼푸 등 생필품 12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후원하고 따뜻한 마음의 정을 나누었다.